

대학생의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따른 군집별 차이*

김 희 주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마음건강센터 / 상담사

선 혜 연†

한국교원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따라 어떤 군집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각 군집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전북, 대전·충청 소재의 대학생 484명을 대상으로 부모화 척도와 자아분화 척도,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군집분석,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4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군집1은 부모화가 모두 높고 자아분화가 모두 낮은 ‘고부모화-저분화형’, 군집2는 부모화가 모두 낮고 자아분화가 모두 높은 ‘저부모화-고분화형’, 군집3은 부모화와 자아분화 모두 평균수준인 ‘평균부모화-평균분화형’, 군집4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 자아통합은 높고 정서적 단절과 가족 퇴행은 낮은 ‘과과적 정서적 부모화-퇴행·단절형’이다. 이러한 각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형제 수, 출생순위, 과거 가정형편, 현재 가정형편, 가족형태)과 대학생활적응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각 군집들은 성별과 형제 순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출생순위, 과거 가정형편, 현재 가정형편, 가족형태, 대학생활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상담 현장과 대학생 내담자를 위한 상담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추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부모화, 자아분화, 군집분석, 대학생

* 본 연구는 김희주(2020)의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따른 군집별 차이 연구’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선혜연,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답연로250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Tel : 043-230-3419, E-mail : shy@knue.ac.kr

부모-자녀 관계는 사실상 자녀의 생의 순간부터 시작되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부모-자녀 관계를 경험하였는지는 자녀의 성격 형성이나 지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Bronfenbrenner, 1975; Medinnus, 1967; Skeels, 1966; 김혜진, 2003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돌봄과 보호의 역할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부모의 돌봄은 자녀의 안녕감에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문소희, 유순화, 윤경미, 2014).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돌보면서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역할전이를 부모화라고 한다(Boszormenyi-Nagy & Spark, 1973). 부모화된 자녀들은 발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모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역할과 그에 따르는 과도한 책임감 및 타인 돌봄을 오랜 기간 떠맡게 된다(Boszormenyi-Nagy, 1973; Stein, Riedel & Rotheram-Borus, 1999). 한편 한국은 효 사상을 중심으로 개인의 감정이나 독립적인 가치에 의한 행동보다는 가족구성원 전체를 중시하는 행동을 가치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홍상욱, 엄경순, 배옥현, 2003), 아이에게 떼를 쓰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좋은 성인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한국의 자녀로 하여금 부모화를 쉽게 경험하게 할 수 있다(공인원, 홍혜영, 2015; 조은영, 정태연, 2004).

부모화 경험은 역할에 따라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으로 나뉘는데(Jurkovic & Thirkield, 1999), 물리적 부모화는 가사노동이나 경제 활동 등의 물리적인 돌봄을 했는지

등을, 정서적 부모화는 가족을 위해 걱정하거나 가정에서 어른처럼 중간역할을 했는지 등을, 불공평은 가족 내 책임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지 등을 나타낸다(Jurkovic & Thirkield, 1999). 이러한 각 하위요인은 특징이 상이하며 개인에게 서로 다른 양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성유선, 이소연, 2020), 그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기보다는 함께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Jurkovic, 1997). 이에 각각의 부모화 하위요인이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야기한 연구들(송현지, 이소연, 2020; 이해영, 최연실, 2016)은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화 경험을 파악할 때 단순한 하위요인이 아닌 하위요인의 조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부모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부모화 경험의 영향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보고하고 있다. 이 중 부모화의 부정적인 측면들에 주목한 연구들은 부모화 경험이 병리적 성격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과도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Chase, Deming & Wells, 1998; Fitzgerald, Schneider, Salstrom, Zinzow & Jackson, 2008; Hooper, 2007; Hooper, 2008; Jones & Wells, 1996; Wells & Jones, 2000)고 하였다. 더불어 피학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 정신분열이 나타날 수 있음(Wells & Jones, 2000)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부모화에 대한 초기 연구는 이처럼 역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부모화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관심을 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Hooper, 2008).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안녕감 증진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건강한 타인 배려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강선모, 임혜경, 2012;

문은미, 최명선, 2008a; 전혜경, 2006; 조은영, 정태연, 2005; Boszormenyi-Nagy & Spark, 2013). 또한, 적절한 부모화는 학교부적응을 낮추고, 심리적 고통을 줄이며, 병리적인 문제를 내면화하거나 외재화하는 것을 감소시키기도 하였다(McMahon & Luthar, 2007). 부모화를 돌봄의 지속성, 정도, 책임의 연속선상에 따라 파괴적 부모화, 상황적응적 부모화, 비부모화로 나눈 연구(Jurkovic, 1997)도 부모화에 적응적 측면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부모화에 대한 선행연구 중에는 자아분화와 관련된성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있다. 가족체계이론의 핵심적 개념인 자아분화는 자신이 자라난 가족과 미분화된 상태에서 생활하던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분리 또는 독립한 상태 혹은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는 자녀가 어머니와의 융합에서 서서히 벗어나 스스로의 정서적 자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Bowen, 1976; 문은미, 2008에서 재인용). 그런데 부모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고 대체로 자녀와 부모 중 한 명이 융합관계를 이루어 감정 전이가 빈번하게 발생할 때에 나타난다(Minuchin, 1974; Minuchin, Montalvo, Guerney, Rosman & Schumer, 1967; 조은영, 2004에서 재인용). 이에 부모화를 Bowen의 가족 체계적 관점에서 보면 부모화된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가족 구조 및 체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모화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더 많은 영향력을 받을 뿐 아니라 많은 영향력을 주기도 하는 역동적 관계를 경험하기 쉽다(문은미, 2008). 이는 부모화와 자아분화가 관련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 부모화된 자녀일수록 자아분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에 따라 부모화와 자아분

화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구경호, 유순화, 2012; 길혜진, 2017; 김은지, 2014; 김인영, 2016; 이지선, 2019)은 실제로 부모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분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화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자아분화가 낮지 않음을 밝힌 선행연구도 있다. 조은영(2004)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정신분화와 대인분화에서는 부모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재현, 김정민, 김나현(2018)의 연구는 물리적 부모화의 경우 오히려 자아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더불어 정서적 부모화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높아져 자아정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이야기하는 연구(문은미, 최명선, 2008b)와 부모화 경험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배우게 하고 역경 탄력성을 증진시켜 건강한 자아분화를 이끈다는 연구(Tompkins, 2007)도 있다. 이와 같은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부모화의 역할이나 수준에 따라 자아분화와 관계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화된 자녀들도 자아분화된 정도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화가 되더라도 부모화의 역할을 내면화하지 않으면 적응적인 부모화가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Jurkovic, 1997)를 고려해볼 때 부모화된 자녀가 가족에게 융합되지 않고 부모화의 역할을 내면화하지 않은 상태, 즉 자아분화된 상태는 부모화된 자녀의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모화는 주로 어린 나이부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발달하는 특성이며 이런 특성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대인관계에서 비슷한

양식으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부모화와 관련된 어려움은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 사이의 전환기 동안 주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eyber, 2006). 이런 까닭에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 시절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부모화는 그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시기는 가족으로부터의 점진적 독립이라는 발달과업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McKinney, Fitzgerald & Strommen, 1982), 원가족과의 건강한 분리를 강조하는 자아분화 수준의 획득은 이러한 대학생의 발달과업과 맞닿아 있다(정기화, 2019).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성인으로서 부모로부터의 독립 욕구 및 타인과의 친밀성 욕구를 가지기 시작하는(Erikson, 1968; 조은영, 2004에서 재인용) 동시에 가족에 대해 자녀로서의 책임감이 증가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서로 모순적인 욕구를 경험하면서 부모-자녀 간에 역동적인 관계를 경험하기 쉽다(조은영, 정태연, 2004). 이러한 점에 주목했을 때 부모화와 자아분화는 서로 관련되면서 대학생의 발달과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이윤주, 2013) 대학생에게 있어 부모화와 자아분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의 부모화와 자아분화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였던 두 변인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부모화와 자아분화를 함께 고려하면서 어떠한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군집분석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군집분석은 유사한 특징을 갖는 표본들끼리 동일한 군집에 분류하여(최운호, 정남운, 2020) 같은 군집에 속한 객체들의 유사성과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객체의 상이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이며(원태연, 정성원, 2010), 전체 대상 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 유용하다(전치혁, 2012). 따라서 군집분석을 통해 실제 한국의 대학생이 부모화와 자아분화를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확인하여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대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군집분석은 각 군집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전략의 계획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김명선, 하은혜, 오경자, 2014; 박민지, 김계현, 2015; Braet & Beyers, 2009; Skinner & Blashfield, 1982). 문화적 특수성을 볼 때 청년기가 되면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미국 대학생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진로문제, 대인관계문제, 성격문제, 가치관문제 등 대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응의 문제가 가족의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박현진, 1999). 따라서 한국의 대학생에게 있어서 가족관계, 그중에서도 가족관계의 역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변인인 부모화와 자아분화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며, 부모-자녀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상담개입전략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따른 군집을 형성하고 각 군집의 특성을 확인한다면 상담센터를 찾아온 대학생들의 유형별로 차별적 개입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차이와 대학생활적응 수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각 군집의 차별적인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부모화와 자아분화는 가족과 관

런된 변인이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같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선행연구들(문비, 2006; 손혜미, 2007; 신주연, 2003; 조은영, 정태연, 2004; 이해영, 최연실, 2016; 최유리, 송현주, 2018; 하예린, 2015; Hooper, Tomek, Bond & Reif, 2015; McMahon & Luther, 2007)에서도 제안되어 왔다. 이에 출생순위, 형제 수, 가정형편, 가족형태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각 군집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에게 있어 대학생활적응은 이후 맞이할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노충래, 2002). 부모화와 자아분화는 이러한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이야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봤을 때 부모화와 자아분화는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옥, 2015; 김중운, 이명희, 2015; 박유화, 2001; 윤효문, 2017; 이서정, 2013; 전해경, 2006). 따라서 대학생활적응 수준은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따른 군집별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차이는 각 군집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을 돕기 위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따라 군집을 분류하고, 각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차이와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통해 그 특성을 확인하여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를 돕고, 부모화 및 자아분화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따라 몇 개의 군집이 존재하는가? 둘째, 각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각 군집별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서울·경기, 전북, 대전·충청 소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IRB심의를 거쳐 2019년 8월, 9월에 진행되었으며, 총 수거된 494부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부를 제외한 48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연구참여자의 성별, 형제 수, 출생순위, 가정형편, 가족형태에 따른 분포는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나이의 경우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나이는 만 21세 정도였다.

측정 도구

부모화 척도

대학생들이 성장기에 경험한 부모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Jurkovic과 Thirkield(1999)가 PQ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Sessions & Jurkovic, 1986)를 토대로 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위해 개발한 FRS-A(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를 신주연(2003)과 조은영(2004)이 번안하고 문비(2006)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과거의 부모화와 현재의 부모화로 나누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 부모화 경험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과거 부모화 척도만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	186(38.4)	
	여	298(61.6)	
형제 수	외동	41(8.5)	
	2명	334(69.0)	
	3명	88(18.2)	
	4명 이상	21(4.3)	
출생순위	외동	41(8.5)	
	첫째	223(46.1)	
	가운데	40(8.3)	
	막내	180(37.2)	
가정형편	과거	매우 잘 살았다	10(2.1)
		잘 사는 편이었다	119(24.6)
		보통이었다	271(56.0)
		어려운 편이었다	80(16.5)
		매우 어려웠다	4(0.8)
	현재	매우 잘 산다	11(2.3)
		잘 사는 편이다	111(22.9)
		보통이다	284(58.7)
		어려운 편이다	71(14.7)
		매우 어렵다	7(1.4)
가족형태	양부모가정(친부+친모+자녀)	443(91.5)	
	한부모가정	32(6.6)	
	재혼가정	5(1.0)	
	조손가정	20(4)	
	기타	2(0.4)	
합계		484(100)	

을 사용하였고, 그 중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3문항을 제외한 27문항을 사용하였다. 27문항은 물리적 부모화 9문항(예, “나는 종종 가족 중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보살피는 책임을 지곤 했다”), 정서적 부모화 9문항(예, “때때로 어머니, 아버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다”), 불공평 9문항(예, “가족들은 나의 입장을 고려해 주지 않는 것 같았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비(2006)의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00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 척도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제석봉(1989)이 Bowen(1976)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7문항(예,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편이다”), 자아통합 6문항(예, “내 말이나 의견이 남의 비판을 받으면 얼른 바꾼다”), 가족투사 6문항(예, “내가 처한 상황은 부모님이 전부터 입버릇처럼 말해 오던대로이다”), 정서적 단절 6문항(예, “나는 자라면서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껴왔다”), 가족퇴행 11문항(예, “우리 가족들은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6문항이며,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전체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하위요인 중 가족투사와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은 점수가 높을수록 그 수준이 낮아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가족퇴행을 많이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가족퇴행 현상을 많이 나타내지 않아 자아분화가 잘 되어 있다고 역으로 해석된다. 제석봉(198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Cronbach's α)가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5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척도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광현, 강성배(2016)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업적응(기초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 학습관리), 사회적

응(학생-학생 관계, 교수-학생 관계, 학내의 교류활동, 사회적지지), 환경적응(대학만족도, 전공만족도, 가정/경제적 환경), 정서적응(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감정조절능력), 진로적응(전공과 진로,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이렇게 5개의 주요인과 1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64개 문항으로, 그 문항은 학업적응 12문항(예, “나는 대학공부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사회적응 15문항(예, “나는 대학생들의 친목활동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 환경적응 14문항(예, “나의 전공, 학과가 만족스럽다”), 정서적응 12문항(예, “나는 나의 감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광현, 강성배(2016)의 연구에서는 신뢰도(Cronbach's α)가 .704~.90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9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5.0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측정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화, 자아분화, 대학생활적응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고, 각 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따라 분류되는 군집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인 Ward법을 사용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고, 다음으로 군집변인들의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으로 설정하여 비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인 K-means 방법을 통해 최종 군집을 확정하였다. 넷째, 각 군집이 성별, 형제 수, 출생순위, 가정형편,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Chi-square)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군집이 대학생 활적응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인 부모화, 자아분화, 대학생활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 간 상관계수는 표 2와 같다. 먼저 부

표 2. 변인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															
2	.752**	-														
3	.904**	.556**	-													
4	.842**	.383**	.683**	-												
5	-.588**	-.258**	-.469**	-.715**	-											
6	-.255**	-.199**	-.148**	-.290**	.580**	-										
7	.000	-.093*	.015	.063	.153**	.005	-									
8	-.353**	-.256**	-.257**	-.366**	.672**	.391**	.094*	-								
9	-.529**	-.149**	-.452**	-.684**	.745**	.243**	-.164**	.348**	-							
10	-.543**	-.146**	-.463**	-.708**	.834**	.284**	-.070	.345**	.645**	-						
11	-.180**	-.036	-.111*	-.290**	.442**	.314**	.264**	.308**	.162**	.355**	-					
12	-.040	.049	-.003	-.136**	.327**	.289**	.232**	.248**	.091*	.223**	.767**	-				
13	-.131**	.006	-.111*	-.208**	.248**	.145**	.142**	.203**	.097*	.197**	.722**	.425**	-			
14	-.264**	-.149**	-.190**	-.314**	.395**	.225**	.161**	.254**	.204**	.353**	.734**	.391**	.389**	-		
15	-.194**	-.043	-.120**	-.308**	.477**	.361**	.343**	.321**	.165**	.357**	.787**	.642**	.493**	.446**	-	
16	-.064	.002	.001	-.155**	.285**	.227**	.176**	.179**	.072	.245**	.804**	.564**	.383**	.528**	.544*	-
M	62.31	20.96	21.49	19.86	106.94	20.44	16.07	19.57	16.61	34.25	229.50	43.62	50.67	50.37	40.80	45.00
SD	15.87	5.70	6.63	6.65	12.77	3.31	2.69	3.54	3.97	6.11	26.06	6.00	7.85	7.19	5.18	7.90

주. * $p < .05$, ** $p < .01$

주. 1 부모화 2 물리적 부모화 3 정서적 부모화 4 불공평 5 자아분화 6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 7 자아통합 8 가족투사 9 정서적 단절 10 가족퇴행 11 대학생활적응 12 학업적응 13 사회적응 14 환경적응 15 정서적응 16 진로적응

모화는 자아분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r = -.588, p < .01$)을 보였는데, 부모화의 하위요인 중 불공평($r = -.715, p < .01$)이 특히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모화와 대학생활 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낮은 정도의 상관을 나타냈다($r = -.180, p < .01$). 반면 자아분화와 대학생활적응은 유의한 정적상관($r = .442, p < .01$)을 보였다.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따른 군집분석

부모화와 자아분화를 기준으로 동질적인 성향을 가진 군집을 분류하기 위해 부모화와 자아분화를 군집변인으로 투입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군집분석과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결합한 방법인 2단계 군집분석을 적용하였다. 먼저, 1단계로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인 Ward법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군집화 일정표와 덴드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2개, 3개, 4개의 군집이 제안되었다. 2단계로 비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인 K-means 군집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군집별 중심점을 기준으로 각 군집 분류의 대략적인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각 군집의 의미와 해석가능성을 고려하고 타당성을 비교·검토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군집을 채택하였다. 군집1에는 74명, 군집2에는 156명, 군집3에는 176명, 군집4에는 78명이 배정되었으며, 4개의 군집에 대해 각 변인들의 표준화 점수를 기준으로 한 최종 중심점은 표 3과 같다.

그림 1은 군집별 표준화 점수를 기준으로 한 군집 프로파일이다. 군집1은 부모화 하위요인이 모두 높고 자아분화 하위요인이 모두 낮다. 이에 부모화 수준이 높고 자아분화 수준이 낮다고 보여져 ‘고부모화-저분화형’이라

표 3. 최종 군집중심

군집변인	군집1 고부모화-저분화형 (n = 74)	군집2 저부모화-고분화형 (n = 156)	군집3 평균부모화-평균분화형 (n = 176)	군집4 파괴적 정서적부모화-단절·퇴행형 (n = 78)
물리적 부모화	1.19452	-.52957	.16581	-.44827
정서적 부모화	1.28509	-.75053	-.05870	.41434
불공평	1.26899	-.93426	-.11816	.93120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	-.80423	.59432	-.14631	-.09553
자아통합	-.31205	.07578	-.24937	.70717
가족투사	-1.01442	.76213	-.28056	.07120
정서적 단절	-.90814	.77659	.21325	-1.17280
가족퇴행	-.88598	.83779	.10473	-1.07134

주.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은 점수가 낮을수록 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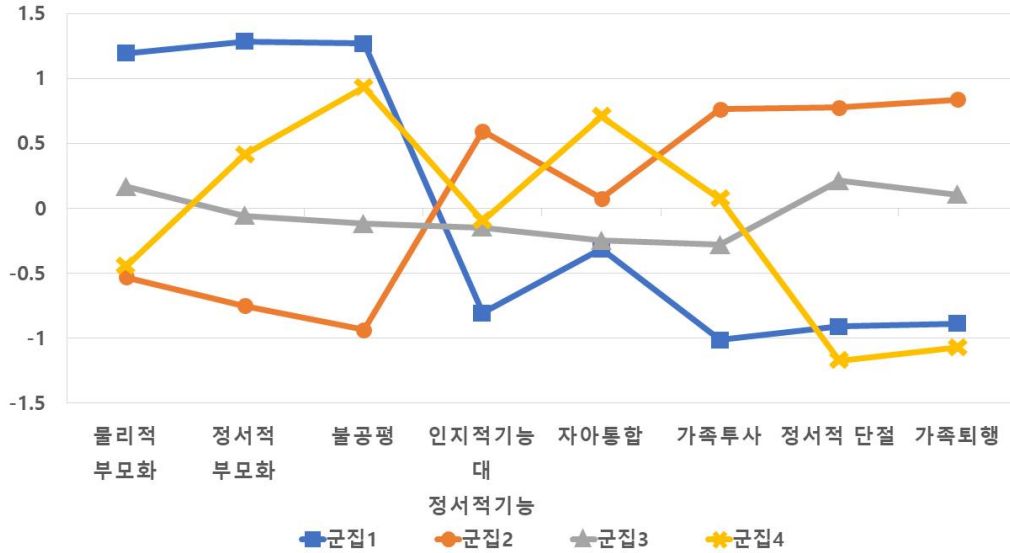


그림 1.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따른 군집 프로파일

고 명명하였다. 군집2는 부모화 하위요인이 모두 낮고 자아분화가 높아 부모화 수준이 낮고 자아분화 수준은 높다고 보여져 ‘저부모화-고분화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3은 부모화와 자아분화 모두 크게 높지도 낮지도 않고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어 ‘평균부모화-평균분화형’라고 명명하였다. 군집4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 자아통합은 높고 정서적 단절과 가족퇴행은 낮은 프로파일이다. Jurkovic, Thirkield와 Morrell(2001)은 군집4처럼 정서적 부모화와 불공평이 높은 경우를 파괴적인 정서적 부모화라고 하면서 파괴적 부모화의 위험성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정서적 단절과 가족퇴행의 낮은 점수는 가족과 정서적으로 단절하고 퇴행적 행동을 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를 봤을 때 군집4는 과거에 부모화를 정서적인 영역에서 경험하고 불공평을 크게 느꼈었으며 현재는 가족들과의 갈등처리방식에 있어서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정서적으

로 단절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아통합도 높이 올라갔는데,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 압력을 받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잘 견지하고 있는가 즉, 대인분화를 나타내는 자아통합을 군집4에서의 낮은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수준과 함께 연관지어서 봤을 때 군집4에서의 높은 자아통합은 높은 대인분화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 정서적으로 단절하고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집4는 가족 내에서 부모화로 인해 불공평을 크게 느끼고 가족성원과 퇴행적으로 갈등하며 타인들과 정서적으로 단절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특징에 따라 군집4의 이름을 ‘파괴적 정서적 부모화-퇴행·단절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따른 군집별 특성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

각 군집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군집별로 성별, 형제 수, 출생순위, 과거 가정형편, 현재 가정형편, 가족형태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군집유형이 성별과 형제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군집유형이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출생순위에 따른 각 군집의 인원분포 및 비율을 살펴보면, 군집1(고부모화-저분화형)의 경우는 첫째(51.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군집2(저부모화-고분화형)는 첫째(38.5%)와 막내(39.7%)가 비슷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군집3(평균부모화-평균분화형)의 경우는 첫째(54.5%)가 가장 많았고, 군집4(과과적 정서적 부모화-단절·퇴행형)는 막내(52.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군집유형이 가정형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거와 현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표 4. 성별과 형제 수에 따른 군집 비율

		군집1 고부모화- 저분화형	군집2 저부모화- 고분화형	군집3 평균부모화- 평균분화형	군집4 과과적 정서적 부모화- 단절·퇴행형	$\chi^2(df)$
		명(%)	명(%)	명(%)	명(%)	
성별	남 (n=186)	27(14.5)	65(34.9)	65(34.9)	29(15.6)	1.027(3)
	여 (n=298)	47(15.8)	91(30.5)	111(37.2)	49(16.4)	
형제 수	외동 (n=41)	8(19.5)	18(43.9)	11(26.8)	4(9.8)	7.841(9)
	2명 (n=334)	47(14.1)	104(31.1)	123(36.8)	60(18.0)	
	3명 (n=88)	15(17.0)	26(29.5)	36(40.9)	11(12.5)	
	4명 이상 (n=21)	4(19.0)	8(38.1)	6(28.6)	3(14.3)	
전체 (n=484)		74(15.3)	156(32.2)	176(36.4)	78(16.1)	

표 5. 출생순위에 따른 군집 비율

	군집1 고부모화- 저분화형	군집2 저부모화- 고분화형	군집3 평균부모화- 평균분화형	군집4 과외적 정서적 부모화- 단절·퇴행형	$\chi^2(df)$
	명(%)	명(%)	명(%)	명(%)	
외동 (n=41)	8(19.5)	18(43.9)	11(26.8)	4(9.8)	20.866(9)*
첫째 (n=223)	38(17.0)	60(26.9)	96(43.0)	29(13.0)	
가운데 (n=40)	7(17.5)	16(40.0)	13(32.5)	4(10.0)	
막내 (n=180)	21(11.7)	62(34.4)	56(31.1)	41(22.8)	
전체 (n=484)	74(15.3)	156(32.2)	176(36.4)	78(16.1)	

주.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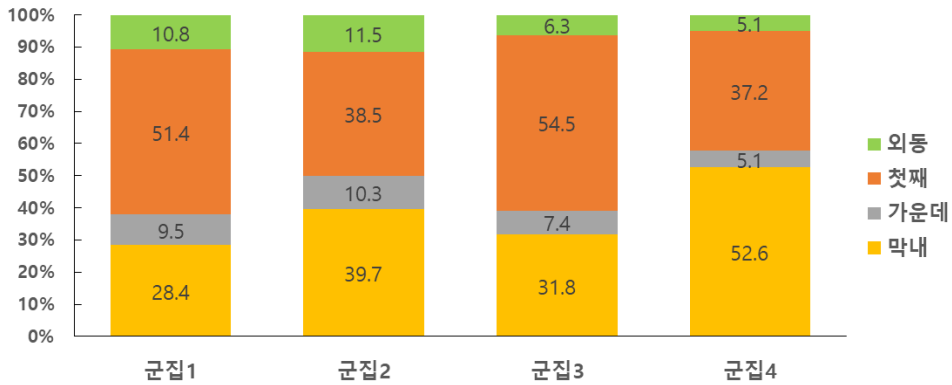


그림 2. 출생순위에 따른 군집별 인원비율

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과거 가정형편에 따른 각 군집의 인원분포 및 비율을 살펴보면, 보통이었다의 사례 수가 가장 많은 만큼 네 개의 군집 모두 보통이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군집1(고부모화-저분화형)의 경우 보통이

었다(55.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어려운 편이었다가 23%로 높았으며, 세 번째로 잘 사는 편이었다(16.2%)가 높았고, 매우 잘 살았다와 매우 어려웠다는 동일하게 2.7%로 가장 낮았다. 군집2(저부모화-고분화형)의 경우 보통이

표 6. 가정형편에 따른 군집 비율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chi^2(df)$
		고부모화- 저분화형	저부모화- 고분화형	평균부모화- 평균분화형	파괴적 정서적 부모화- 단절·퇴행형	
		명(%)	명(%)	명(%)	명(%)	
과거 가정 형편	매우 잘 사는 편이었다 (n = 10)	2(20.0)	5(50.0)	2(20.0)	1(10.0)	30.656(12)**
	잘 사는 편이었다 (n = 119)	12(10.1)	52(43.7)	44(37.0)	11(9.2)	
	보통이었다 (n = 271)	41(15.1)	87(32.1)	98(36.2)	45(16.6)	
	어려운 편이었다 (n = 80)	17(21.3)	12(15.0)	31(38.8)	20(25.0)	
	매우 어려운 편이었다 (n = 4)	2(50.0)	-	1(25.0)	1(25.0)	
	매우 잘 사는 편이다 (n = 11)	2(18.2)	6(54.5)	2(18.2)	1(9.1)	
잘 사는 편이다 (n = 111)	11(9.9)	51(45.9)	39(35.1)	10(9.0)		
보통이다 (n = 284)	46(16.2)	88(31.0)	108(38.0)	42(14.8)		
어려운 편이다 (n = 71)	13(18.3)	10(14.1)	24(33.8)	24(33.8)		
매우 어려운 편이다 (n = 7)	2(28.6)	1(14.3)	3(42.9)	1(14.3)		
전체 (n = 484)		74(15.3)	156(32.2)	176(36.4)	78(16.1)	

주.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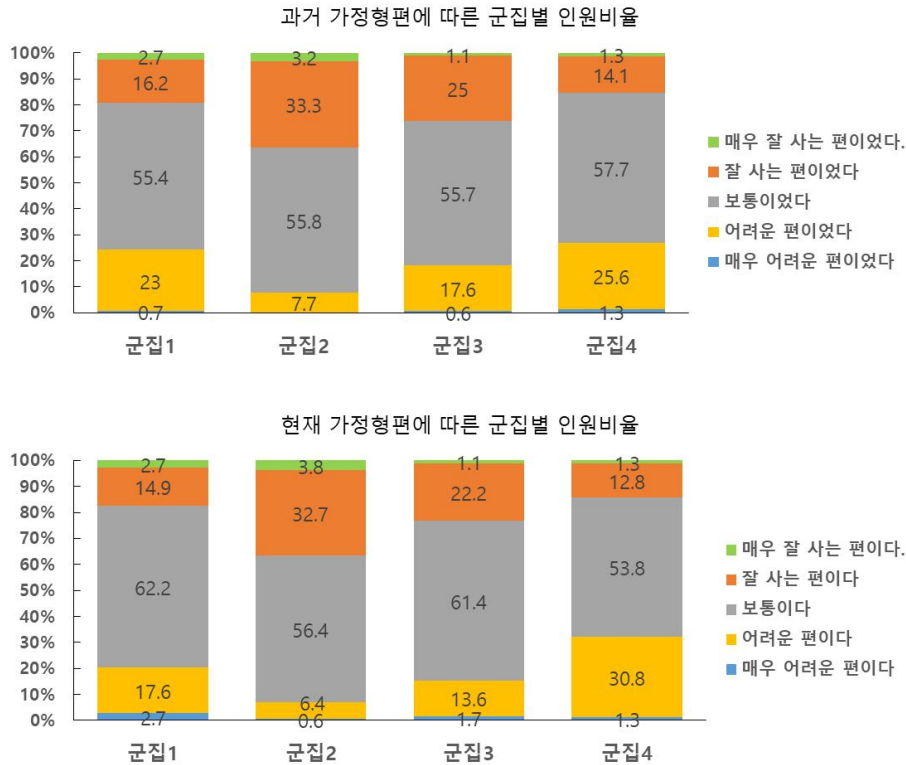


그림 3. 가정형편에 따른 군집별 인원비율

었다(55.8%)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잘 사는 편이었다(33.3%)가 높는데, 잘 사는 편이었다는 다른 군집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군집2(저부모화-고분화형)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어려운 편이었다(7.7%)와 매우 어려운 편이었다(0%)는 다른 군집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군집3(평균부모화-평균분화형)은 보통이었다(55.7%), 잘 사는 편이었다(25%), 어려운 편이었다(17.6%), 매우 잘 사는 편이었다(1.1%), 매우 어려운 편이었다(0.6%)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군집4(파괴적 정서적 부모화-퇴행·단절형)는 보통이었다(57.7%), 어려운 편이었다(25.6%), 잘 사는 편이었다(14.1%) 순으로 높았고, 매우 잘 사는 편이었다와 매우 어

려운 편이었다는 1.3%로 동일하게 가장 낮았다. 군집4(파괴적 정서적 부모화-퇴행·단절형)의 경우 다른 군집들과 비교했을 때 잘 사는 편이었다의 비율은 가장 낮은 반면 어려운 편이었다의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 가정형편에 따른 각 군집의 인원분포 및 비율을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사례 수가 가장 많은 만큼 네 개의 군집 모두 보통이다가 가장 높았다. 군집1(고부모화-저분화형)의 경우 보통이다(62.2%), 어려운 편이다(17.6%), 잘 사는 편이다(14.9%) 순으로 높았고, 매우 잘 산다(2.7%)와 매우 어렵다(2.7%)는 동일하게 가장 낮았다. 군집2(저부모화-고분화형)의 경우 보통이다(56.4%), 잘 사는 편이다

(32.7%), 어려운 편이다(6.4%), 매우 잘 사는 편이다(3.8%), 매우 어려운 편이다(0.6%) 순으로 높았다. 군집2(저부모화-고분화형)는 매우 잘 사는 편이다와 잘 사는 편이다의 비율이 다른 군집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던 반면 어려운 편이다와 매우 어려운 편이다의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군집3(평균부모화-평균분화형)은 보통이다(61.4%), 잘 사는 편이다(22.2%),

어려운 편이다(13.6%), 매우 어려운 편이다(1.7%), 매우 잘 사는 편이다(1.1%)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군집4(파괴적 정서적 부모화-퇴행·단절형)는 보통이다(53.8%), 어려운 편이다(30.8%), 잘 사는 편이다(12.8%) 순으로 높았고, 매우 잘 사는 편이다와 매우 어려운 편이다는 1.3%로 동일하게 가장 낮았다. 군집4(파괴적 정서적 부모화-퇴행·단절형)의 경우

표 7. 가족형태에 따른 군집 비율

가족 형태	군집1 고부모화- 저분화형	군집2 저부모화- 고분화형	군집3 평균부모화- 평균분화형	군집4 파괴적 정서적 부모화- 단절·퇴행형	$\chi^2(df)$
	명(%)	명(%)	명(%)	명(%)	
양부모가정 (친부+친모+자녀) (n=443)	64(14.4)	149(33.6)	163(36.8)	67(15.1)	22.123(12)*
그 외 가족형태 (n=41)	10(24.4)	7(17.1)	13(31.7)	11(26.8)	
전체 (n=484)	74(15.3)	156(32.2)	176(36.4)	78(16.1)	

주.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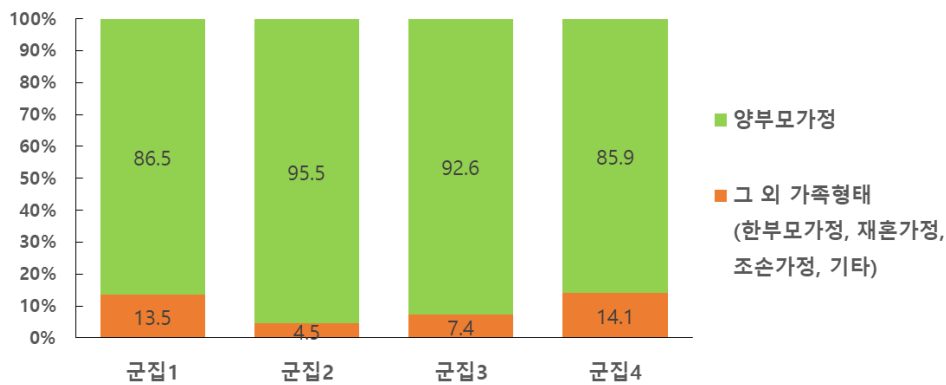


그림 4. 가족형태에 따른 군집별 인원비율

다른 군집들과 비교했을 때 잘 사는 편이다의 비율은 가장 낮은 반면 어려운 편이다의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7과 그림 4에 가족형태에 따른 각 군집의 인원분포 및 비율을 제시하였다. 가족형태는 친부와 친모,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양부모가정과 그 외의 가족형태로 구분하였다. 그 외의 가족형태에는 한부모가정과 재혼가정, 조손가정, 기타가 포함된다. 각 군집유형이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22.123$, $df = 12$, $p = .036$). 가족형태에 따른 군집별 특성을 보면 양부모가정의 비율은 군

집2(저부모화-고분화형)가 다른 군집들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가정 외의 가족형태는 군집1(고부모화-저분화형)과 군집4(과괴적 정서적 부모화-퇴행·단절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군집별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분류된 군집들이 대학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는데,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등분산성이 가

표 8. 군집별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군집1 고부모화- 저분화형	군집2 저부모화- 고분화형	군집3 평균부모화- 평균분화형	군집4 과괴적 정서적 부모화- 단절·퇴행형	F	사후 검정
	M(SD)	M(SD)	M(SD)	M(SD)		
대학생활적응	219.08 (22.45)	242.91 (26.19)	223.74 (22.01)	225.74 (27.26)	24.142***	2>1,3,4
학업적응	42.42 (5.69)	45.96 (5.63)	42.15 (5.55)	43.41 (6.64)	14.349***	2>1,3,4
사회적응	49.09 (8.45)	53.24 (7.70)	49.56 (7.12)	49.54 (8.03)	8.678***	2>1,3,4
환경적응	47.04 (5.68)	53.80 (7.25)	49.23 (6.21)	49.26 (7.84)	21.691***	2>3>1
정서적응	38.60 (4.55)	43.31 (4.83)	39.71 (4.50)	40.31 (5.95)	22.013***	2>1,3,4
진로적응	43.21 (7.35)	47.31 (7.86)	44.03 (6.92)	44.27 (9.55)	7.039***	2>1,3

주. *** $p < .001$

주. 1=군집1, 2=군집2, 3=군집3, 4=군집4

정되지 않은 요인은 Dunnett T3 검정을, 등분산성이 가정된 요인들은 Scheffé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활적응 및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업적응과 사회적응, 정서적응은 군집2(저부모화-고분화형)가 군집1(고부모화-저분화형), 군집3(평균부모화-평균분화형), 군집4(파괴적 정서적 부모화-퇴행·단절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환경적응의 경우에는 군집2(저부모화-고분화형)가 군집3(평균부모화-평균분화형)보다, 군집3(평균부모화-평균분화형)이 군집1(고부모화-저분화형)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진로적응은 군집2(저부모화-고분화형)가 군집1(고부모화-저분화형), 군집3(평균부모화-평균분화형)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따른 군집을 분류하고, 각 군집별로 성별, 형제 수, 출생순위, 가정형편, 가족형태,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군집별 특성을 기술하고, 가족관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 내담자의 상담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에 앞서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화와 자아분화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된 자녀가 덜 분화되었다는 기존의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와 일치했다(구경호, 유순화, 2012; 김인영, 2016; 김지인, 오계은, 2014; 오사랑, 2017; Chase, 1999; Jacobvitz & Sroufe, 1987;

Karpel, 1977; Minuchin, 1974). 부모화된 자녀들은 부모와의 상호 의존을 더욱 돈독히 하여 부모로부터의 자아분화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이며(Erikson, 1959; 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 Karpel, 1997), 부모화가 높은 자녀일수록 부모에 대한 책임감을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유지하여(조은영, 정태연, 2004) 자아분화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화 경험은 가족으로부터 적절히 독립하여 개인이 정서적으로 성숙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 부모화, 자아분화와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을 보면 부모화와 대학생활적응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그 상관관은 낮았고, 자아분화와 대학생활적응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부모화와 대학생활적응의 상관보다 더 상관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분화가 잘 된 개인은 주어진 상황에 잘 대처하며, 삶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도 능동적이며(김현영, 2005; 이민수, 2000; 조혜정, 2012), 성장기에 부모화 경험을 했더라도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면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아분화의 측면에서 조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화와 자아분화를 기준으로 하여 군집을 분류한 결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4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각 군집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연구참여자 총 484명 중 군집1(고부모화-저분화형)은 74명, 군집2(저부모화-고분화형)은 156명, 군집3(평균부모화-평균분화형)은 176명, 군집4(파괴적 정서적 부모화-단절·퇴행형)은 78명이 분포되었다. 즉, 부모화 수준

이 높지 않고 자아분화 수준도 평균 이상인 군집2(저부모화-고분화형), 군집3(평균부모화-평균분화형)의 인원이 연구참여자의 68%를 차지하면서 연구참여자 대다수는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모화와 자아분화 모두 높지도 낮지도 않고 평균수준에 있는 군집3(평균부모화-평균분화형)은 한국 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한국 대학생들은 대입을 위해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여러 발달과업들을 유보시킨 채 부모에게 밀착되어 많은 부분을 의존하며 지내오는 경우가 많다(박순천, 백경임, 2011).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이 아직 자아분화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군집3(평균부모화-평균분화형)의 경우 자아분화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통한 성장을 거치면서 충분히 자아분화가 높아질 수 있는 군집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군집4(과괴적 정서적 부모화-단절·퇴행형)의 형성은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이 자아통합,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과 관련이 있다는 문은미, 최명선(2008b)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군집4(과괴적 정서적 부모화-단절·퇴행형)는 가족갈등을 많이 경험한 군집으로서 가족 내에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불공평한 경험이 많이 하고 퇴행적인 방법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문은미, 최명선, 2008b)나 부모화된 자녀일수록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안수준이 높아 가족 갈등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조은영, 정태연, 2004), 부모와 정서적 융합이 심한 자녀는 가족과의 긴장과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정적으로 단절한다는 연구결과(Bowen, 1978; 문은미, 최명선, 2008b에서

재인용)를 반영하고 있다. 즉, 군집4(과괴적 정서적 부모화-단절·퇴행형)는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 정서적 부모화와 불공평을 경험했기에 퇴행적, 단절적 방법을 행하는 특성을 보이는 군집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군집유형 분류에서 주목할 점은, 부모화가 높으면서 자아분화도 높은 군집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화가 높아도 자아분화가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문은미, 최명선, 2008b; 조은영, 정태연, 2004; 안재현 등, 2018)와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부모화 경험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게 하고 역경 탄력성을 증진시켜 건강한 분화를 돕는다는 Tompkins (2007)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군집3(평균부모화-평균분화형)의 형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의 대학생이 심리적·경제적으로 부모와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여 현재 자아분화를 이루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인 혹은 성인 중기를 연구대상으로 했다면 과거에 부모화 경험을 했더라도 자아분화가 높은 군집이 형성되었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셋째, 각 군집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군집유형이 성별, 형제 수, 출생순위, 가정형편,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형제 수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출생순위, 과거 가정형편, 현재 가정형편,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군집1(고부모화-저분화형)의 첫째 비율이 높은 것은 장자녀가 부모화 경험을 더욱 높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최유리, 송현주, 2018; 하예린, 2015)와 일치하며 장자녀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 경향이 높다는 Kerr와 Bowen(2005)의 의견을

지지한다. 그러나 군집4(과과적 정서적 부모화-단절·퇴행형)의 경우는 막내 비율이 높는데 이를 봤을 때 막내들은 오히려 물리적 부모화는 낮고 정서적 부모화와 불공평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형편에 따른 차이를 보면 군집4(과과적 정서적 부모화-단절·퇴행형)는 잘 사는 편이다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려운 편이다의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적 부모화와 불공평이 모두 높은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이해영, 최연실(2016)의 연구와 일치한다. 경제 수준이 낮은 가정 내의 자녀는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인 중재와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부모나 형제에게 자신을 수용, 이해, 지지받고 싶은 욕구는 채워지지 않아 불공평함을 경험하기 때문에(손혜미, 2007), 가족과 정서적 단절을 하거나 퇴행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인다.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를 보면 양부모가정의 비율은 군집2(저부모화-고분화형)가 다른 군집들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부모가정 외의 가족형태 비율은 군집1(고부모화-저분화형)과 군집4(과과적 정서적 부모화-단절·퇴행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원의 질병이나 사망, 부모의 갈등 및 융합, 별거 및 이혼, 재혼과 같은 가족 스트레스를 경험한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부모화 혹은 가족퇴행과 관련된 삼각화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는 기존 연구들(문비, 2006; 손혜미, 2007; 신주연, 2003; 조은영, 정태연, 2004; 하예린, 2015; Cummings & Davies, 2002; Davies & Cummings, 1994; Davis, Hops, Alpert & Sheeber, 1998; Jurkovic, et al, 2001; Lamorey, 1999)을 지지하는 결과로 보인다. 이혼률이 증

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재 한국의 실정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는 그러한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심리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각 군집별 특성 및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활적응에서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군집1(고부모화-저분화형)은 대학생활적응과 그 하위요인 모두 평균 이하이며 학업적응을 제외한 모든 적응이 다른 군집들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고, 군집2(저부모화-고분화형)는 진로적응을 제외한 대학생활적응이 다른 군집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군집3(평균부모화-평균분화형)은 대학생활적응 및 그 하위요인들이 군집2(저부모화-고분화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전 부 평균 이하였고, 군집4(과과적 정서적 부모화-단절·퇴행형)는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진로적응을 제외한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들이 군집2(저부모화-고분화)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를 중심으로 각 군집별 차별화된 개입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군집1(고부모화-저분화형)은 학업적응을 제외한 모든 적응이 다른 군집들에 비해 가장 낮아 군집들 중 가장 부적응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군집1(고부모화-저분화형)에 속한 내담자가 상담에 찾아올 경우 성장기 때의 부모화 경험과 현재를 분리시켜야 하며, 만약 현재에도 부모화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면 자신과 부모의 문제를 분리하고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이지선, 2019). 이를 위해서 Bowen의 가족체계적 접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효순(2014)은 부모화된

내담자의 자아분화를 돕기 위한 Bowen 가족치료의 효과성을 사례연구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박효순(2014)의 연구를 참고하였을 때 ‘내담자의 부모화 수준을 파악하기, 원가족에서 부모화 된 과정 파악하기, 자신의 정서적 패턴 파악하기, 부모화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기, 자아분화를 이루기, 새로운 경험’의 과정으로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신의 원가족을 건강하게 지각하는 사람은 자아분화가 높다는 이지민(2010)의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가족의 자원을 찾아 긍정적인 가족상을 세우는 과정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군집2(저부모화-고분화형)는 다른 군집들에 비해 대학생활적응이 유의미하게 높은 유형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적응적인 유형이다. 다만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진로적응에 있어서는 군집4(파괴적 정서적 부모화-단절·퇴행형)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군집2(저부모화-고분화형)의 자아분화 하위요인 중 자아통합만 군집4(파괴적 정서적 부모화-단절·퇴행형)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결과는 자아통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자아통합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우은미, 2012), 진로준비행동(권순진, 2010), 진로결정수준(김가미, 소용준, 박준상, 2018)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입임을 밝힌 선행연구들도 위와 같은 의견을 지지한다. 이에 군집2(저부모화-고분화형)에 속한 내담자들에게는 진로적응의 향상을 위해 자아통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기 자신의 일관된 신념에 따른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군집3(평균부모화-평균분화형)은 대

학생활적응 및 그 하위요인들이 전부 평균 이하인데, 군집3(평균부모화-평균분화형)의 경우 아직 자아분화를 이루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경욱, 2015; 김종운, 이명희, 2015; 박유화, 2001; 윤효문, 2017; 이서정, 2013)를 고려했을 때 자아분화를 조력할 수 있는 상담적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화나 부모와의 정서적 융합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인 초기로서 가족들과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함을 인식하게끔 하고 주체성을 찾도록 돕는 방향으로 개입하면 자아분화의 예후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군집4(파괴적 정서적 부모화-단절·퇴행형)는 정서적 부모화와 불공평이 높고 정서적 단절과 가족퇴행 수준이 낮아 역기능적이고 부정응적인 프로파일을 보일 것이라 예상되나 그와 다르게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평균에 가깝다. 자아통합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았다는 선행연구들(박유화, 2001; 이서정, 2013)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는 자아통합의 상승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비록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수준과 자아통합의 상승을 함께 연관지어서 봤을 때 그 상승이 대인관계에 있어 정서적으로 단절하고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 압력을 받을 때에도 자기 신념과 생활원리를 잘 견지할 수 있는 높은 자아통합 수준은 군집4(파괴적 정서적 부모화-단절·퇴행형)에 속한 개인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군집4(파괴적 정서적 부모화-단절·퇴행형)의 내담자가 상담실에 방문했을 때에는 이들의 취약한 자아분화 측면인 정서적

단절과 가족퇴행에 대한 문제에 보다 초점을 둔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족 내에서의,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력이 상담장면에서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서적 부모화와 불공평이 가장 높은 만큼 원가족과 부모에게 가지는 불공평함과 여러 부정적 감정의 해소를 상담 장면에서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부모화와 자아분화가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부모화와 자아분화를 기준으로 하여 도출된 내담자 군집별로 차별적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는 학문적, 실제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의 표집이 서울·경기, 전북, 대전·충청 소재의 대학생들에게 한정되었다는 점, 부모로부터 심리적·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기 어려운 한국 대학생(문은미, 최명선, 2008a) 특성상 연구참여자들이 아직 자아분화의 과정 중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상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군집별 특성을 알아보고 대학상담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선택하였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부모화와 자아분화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선모, 임혜경 (2012). 대학생의 과보호 및 부모화 경험이 내현적 자기에 성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4), 53-78.

공인원, 홍혜영 (2015). 대학생의 부모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불일치와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2), 21-47.

구경호, 유순화 (2012).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의 관계. 상담학연구, 13(6), 2763-2776.

권순진 (2010).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진로의사결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길혜진 (2017).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자기애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김가미, 소용준, 박준성 (2018).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9(1), 63-83.

김경욱 (2015).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자아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김광현, 강성배 (2016).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양교육연구, 10(3), 253-193.

김명선, 하은혜, 오경자 (2014). 심리장애 진단 아동의 K-CBCL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군집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4), 675-693.

김은지 (2014). 청소년의 부모화경험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및 자아분화 수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김인영 (2016). 대학생의 부모화 하위유형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중운, 이명희 (2015). 전문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자아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506-516.
- 김지인, 오제은 (2014). 부모화와 자아분화가 진로태도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인 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 비교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2), 59-91.
- 김현영 (2005). 청소년기 자아분화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김혜진 (2003).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관계 및 아동의 학교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노충래 (2002). 재외국민특례입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자긍심, 삶의 만족도 및 대학환경인식의 관계와 서비스 욕구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87-120.
- 문비 (2006).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문소희, 유순화, 윤경미 (2014). 지각된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3), 105-128.
- 문은미 (2008).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문은미, 최명선 (2008a).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청년기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5(2), 103-122.
- 문은미, 최명선 (2008b).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063-1085.
- 박민지, 김계현 (2015). 대학생의 진로발달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진로서비스 요구의 차이. 상담학연구, 16(4), 193-208.
- 박순천, 백경임 (2011).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불교상담학회지, 3(1), 79-96.
- 박윤희 (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적응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현진 (199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체계유형과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박효순 (2014). 부모화 된 미혼성인자녀의 자아분화를 돕기 위한 보웬적 가족치료.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
- 성유선, 이소연 (2020). 청소년 및 대학생의 부모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3(3), 263-296.
- 손혜미 (2007). 부부갈등이 대학생 자녀의 부모화 경험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현지, 이소연 (2020). 청소년의 부모화 군집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우울 증상, 안녕감의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28(1), 339-365.
-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안재현, 김정민, 김나현 (2018).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이 자아분화와 심리적 안녕감에

-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3(2), 19-32.
- 오사랑 (2017).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 부모화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우은미 (2012). 대학생이 지각한 자아분화와 부모매착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원태연, 정성원 (2010). 통계조사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윤효문 (2017). 자기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 이민수 (2000). 가족응집력과 자아분화가 공감과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서정 (2013).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대인관계,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대학원.
- 이윤주 (2013). 문장완성검사에 나타난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부모화. *상담학연구*, 14(6), 3391-3407.
- 이지민 (2010). 가족상담: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대학생 우울 간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1(3), 1271-1287.
- 이지선 (2019).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부모화 경험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비교: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이혜영, 최연실 (2016). 대학생의 부모화 유형에 따른 관계적 자기 인식. *가족과 문화*, 28(1), 314-342.
- 전치혁 (2012). 데이터마이닝 기법과 응용. 서울: 한나래.
- 전혜경 (2006). 자녀의 부모화 및 부자유친성정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정기화 (2019). 대학생의 발달과업 내 자아분화 관련 개인상담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8(2), 4-76.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조은영 (2004).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조은영, 정태연 (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43-62.
- 조은영, 정태연 (2005). 부모화된 자녀의 개인적 및 가족관계적 특성: 자기보고 및 상담을 통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833-853.
- 조혜정 (2012).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우울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최유리, 송현주 (2018).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화 경험과 자기분화의 관계. *인문사회21*, 9(3), 815-828.
- 최윤호, 정남운 (2020). 완벽주의 군집유형 분류: 높은 기준이 부여되는 원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523-545.

- 하예린 (2015).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홍상욱, 엄경순, 배옥현 (2003). 현대가족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139-155.
- Boszormenyi-Nagy, I., & Spark, G. M.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Boszormenyi-Nagy, I., & Spark, G. M. (2013). *Invisible loyalties*. New York: Routledge.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Jr. (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pp. 42-90). New York: Gardner Press.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raet C., & Beyers, W. (2009) Subtyping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overweight: Different symptomatology and treatment outcomes. *Journal of Consulting Clinical Psychology*, 77(5), 814-824.
- Bronfenbrenner, U. (1975).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in retrospect and prospect*. New York: Guilford.
- Chase, N. D. (1999). Parentification: An overview of theory, research, and societal issues. In N. D. Chase (Ed.),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pp. 3-33). Thousand Oaks, CA: Sage.
- Chase, N. D., Deming, M. P., & Wells, M. C. (1998). Parentification, parental alcoholism, and academic status among young adult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2), 105-114.
- Cummings, E. M., & Davies, P. T. (2002).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Recent advances and emerging themes in process-oriented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1), 31-63.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 Davis, B. T., Hops, H., Alpert, A., & Sheeber, L. (1998). Child responses to parental conflict and their effect on adjustment: A study of triadic rela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2), 163-177.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itzgerald, M. M., Schneider, R. A., Salstrom, S., Zinzow, H. M., & Jackson, J. (2008). Child sexual abuse, early family risk, and childhood parentification: Pathways to current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2), 320-324.
- Fullinwider-Bush, N., & Jacobvitz, D. B. (1993).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and female identity development. *Family Process*, 32(1), 87-103.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oper, L. M. (2007). Expanding the discussion regarding parentification and its varied outcome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9(4), 332-337.
- Hooper, L. M. (2008). Defining and understanding parentification: Implications for all counselors. *The Alabama Counselor Association Journal*, 34(1), 34-43.
- Jacobvitz, D., & Sroufe, L. A. (1987). The early caregiver-child relationship and attention-deficit disorder with hyperactivity in kindergarten: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58(6), 1496-1504.
- Jones, R., & Wells, M. C. (1996). An empirical study of parentification and personalit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4, 145-152.
-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Mazel.
- Jurkovic, G. J., & Thirkield, A. (1999).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FRS-A)*. Available from Gregory J. Jurkovic,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laza, Atlanta GA 30303, USA.
-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of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2), 245 - 257.
- Karpel, M. A. (1977). Intrapyschic and interpersonal processes in the parentification of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8, 365.
- Kerr, M. E., & Bowen, M. (2005).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8에 출판)
- Lamorey, S. (1999). Parentification of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or chronic disease. In N. D. Chase,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pp. 75-91).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McKinney, J., Fitzgerald, H., & Strommen, E. (1982). *Developmental psychology, the adolescent and young adult*. Homewood, IL: Dorsey.
- McMahon, T. J., & Luthar, S. S. (2007).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consequences of caretaking burden among children living in urba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2), 267-281.
- Medinnus, G. R. (1967). *Reading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 Minuchin, S., Montalvo, B. G., Guerney, B., Rosman, B. L., & Schumer, F. (1967). *Families of the slums: An exploration of their structure & treatment*. New York: Basic Book.
- Sessions, M. W., & Jurkovic, G. J. (1986). *The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Available from Gregory J. Jurkovic,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laza, Atlanta, GA 30303.
- Skeels, H. M. (1966). Adult status of children with contrasting early life experiences: A follow-up stud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1(3), 1-65.
- Skinner, H., & Blashfield, R. K. (1982). Increasing the impact of cluster analysis research: The case of psychiatric classification. *Journal of*

-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5), 727-735.
- Stein, J. A., Riedel, M., & Rotheram-Borus, M. J. (1999). Parentification and its impact on adolescent children of parents with AIDS. *Family Process*, 38, 193-208.
- Teyber, E. (2006). 이혼가정 자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성정현, 김희수, 박한샘 공역). 서울: 청목출판사. (원전은 2001에 출판).
- Tompkins, T. L. (2007). Parentification and maternal HIV infection: Beneficial role or pathological burd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 113-123.
- Wells, M., & Jones, R.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9-27.

원 고 접 수 일 : 2020. 10. 02

수정원고접수일 : 2020. 11. 19

게 재 결 정 일 : 2020. 11. 23

The Differences of Cluster Types Based on the Parentification and Self-Differentiation of College Students

Hui-ju Kim

Daejeon Government Complex Maum-Nare
Counselor

Hye-yon Se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classify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ification and self-differentiation in college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484 college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two-stage cluster analysis, cross tabulation analysis, one-way ANOVA, and a posteriori test. Cluster 1 was labeled, 'high parentification-low differentiation,' cluster 2 was labeled 'low parentification-high differentiation,' cluster 3 was labeled 'average parentification-average differentiation,' and cluster 4 was labeled 'destructive emotional parentification-regression cut off'.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revealed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clusters based on birth order, past family type, current family type, family form, and college life adaptation. Th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of further research on parentification and self-differentiation in the study of college students, and the need for differential diagnosis and discrimination in college counseling by classifying clusters for college students seeking counseling.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a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ification, self-differentiation, cluster analysis, college student